

사회적지지가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스트레스 및 이탈행동에 미치는 영향

권옥동*

¹대구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Youth Student-Athletes' Stress and Deviant Behavior

Wook-Dong Kwon¹*

¹Department of Sports and Leisure Studies, Daegu University

요약 이 연구는 친구, 선후배 및 코치의 사회적지지가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운동스트레스 및 이탈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연구의 대상자는 비확률 표본추출법중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D시와 G시에 소재한 2개의 체육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체육특기생 350명을 표집 하였다. 최종 회수된 217부의 설문지 중 질문문항의 일괄적인 처리 혹은 무응답과 오기입 등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지는 35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8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AMO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사회적지지는 청소년 운동선수의 운동스트레스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운동스트레스는 이탈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지지는 운동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이탈행동에 유의한 간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from friend, senior-junior, and coach on student-athletes' stress and deviant behavior. By using convenience sampling method of non-probability sampling, a total of 350 student-athletes from D and G city were selected. Of 217 copies of the questionnaire gathered, 35 were discarded owing to having excessive missing values. Thus, by analysing a total of 182 surveys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rough AMOS 20.0 statistics program, this study found the followings. First, social support has a negative influence on stress. Second, stress has a positive influence on deviant behavior. Third, social support has a negative influence on deviant behavior mediated by stress.

Keywords : Social support, Stress, Deviant behavior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1974년 개교한 서울체육고등학교로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체육고등학교는 올림픽과 같은 각종 국제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국위선양의 선봉이자 엘리트

체육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 왔다[1]. 이러한 체육고등학교는 2014년 기준 16개가 전국각지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3만 명이 넘는 청소년 운동선수들이 재학 중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2]. 체육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운동선수는 일반학교의 학생들과는 달리, 운동능력 및 경기성적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매일같이 반복되는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3,4,5]. 그러나 때로는 이

본 연구는 2012년 대구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Wook-Dong Kwon(Daegu Univ.)

Tel: +82-53-850-6088 email: wdkwon@daegu.ac.kr

Received July 3, 2015

Revised (1st July 22, 2015, 2nd July 23, 2015)

Accepted August 6, 2015

Published August 31, 2015

러한 과도한 승리지상주의와 오랜 기간의 집단생활로 인한 그들만의 특수하고 폐쇄적인 문화는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전인적 인격형성 및 사회성 함양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6,7,8].

특히 이러한 청소년 운동선수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심리적 문제 중의 하나가 운동 및 집단생활에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다[7,8]. 더욱이 이러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청소년에게 있어 음주, 흡연 및 약물중독과 같은 다양한 이탈행위를 유발시키며, 공격성 또한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6,9-11]. 이탈행동이란 작게는 사회적 체제 및 문화 속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정당화된 공공의 도덕적 규범들을 어기는 행위에서부터, 크게는 법률적으로 명시된 객관적인 규범을 어기는 위법행위까지 포함될 수 있다[12-15]. 즉,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이탈행위를 줄이기 위하여 이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6-8,11]. 선행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의 정신적 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밝혀진바 있지만, 그 중 사회적지지는 청소년의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이탈행동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9,10,16,17]. 사회적지지만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타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자원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18,19]. 일례로, 한 개인이 스스로 보살핌을 받고 있으며, 가치 있다고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주는 대화 등을 들 수 있다[18,19].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와 같은 각종 심리적 문제를 포함하여 성폭력, 가족해체, 알코올 및 약물중독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사회문제를 완화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적용되고 있다[20]. 특히 정신적·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주변으로 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지지가 낮을수록 불안, 우울 및 분노등과 같은 심리적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1,22].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은 선행연구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지만 평가적지지, 물질적지지, 정서적지지 등을 포함할 수 있다[23,24].

한편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사회적지지의 연구에 있어서 지지제공자는 주로 부모·형제자매와 같은 가족 그리고 교사 및 친구등과 같은 학교생활 및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교유의 대상을 포함할 수 있다[25-28].

교사는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에 있어서 가정과 학교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한다[29]. 이러한 교사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학생과 사회적·심리적으로 소통하며 사적이며 자유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며, 둘째는 학업 성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업무 중심의 인간관계이다[30]. 특히 학교생활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사회적·심리적 소통 및 욕구 해소가 되지 않으면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30].

한편 학교생활에 있어서 친구는 함께 활동하는 동반자이자 때로는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기준으로써 자아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31,32]. 특히 교우관계는 교사와의 관계와는 달리 대등적 관계로 맺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교우관계를 통하여 타인과의 관계에서 적대심·지배욕 등을 제어하는 방법과 타인을 통솔하는 방법 등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다[32].

또한 친밀한 교우관계를 형성한 학생들은 대체로 긍정적 자존감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심리·사회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보이며,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사회성도 높다[33]. 뿐만 아니라 학업 적으로도 우수한 성취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33]. 그러나 반대로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거나 배척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자존감이 하락하며 부정적 성격을 지니게 되어 차후 사회생활에서도 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34]. 이처럼 교우관계는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여주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의 적응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1.2 가설 설정

한편 그동안 사회적지지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9,16,35,36], 스트레스가 이탈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9,17,37,38] 및 사회적지지, 스트레스 및 이탈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9,10,16]는 꾸준히 있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고등학교라는 특수한 교육환경과 문화에서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지지, 스트레스 및 이탈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즉,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사회적지지, 스트레스 및 이탈행위의 관계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체육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1: 사회적지지는 운동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운동스트레스는 일탈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사회적지지는 운동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일탈행동에 간접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의 대상자는 비확률 표본추출법(non-probability sampling)중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D시와 G시에 소재한 2개의 체육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운동선수 350명을 표집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4년 10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설문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상자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자가 기록하게 하였다. 또한 응답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으며, 회수된 자료의 익명성 보장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최종 회수된 217부(응답률 62%)의 설문지 중 질문 문항의 일괄적인 처리 혹은 무응답, 오기입 등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지는 35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8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연구도구

운동스트레스에 대한 문항은 이근철, 서상진, 이강헌 [1]이 개발한 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의 스트레스 검사지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운동스트레스(athletic stress; 4문항), 동료와의 갈등(conflict with teammates; 6문항), 지도자스트레스(coach stress; 4문항), 생활스트레스(life stress; 6문항)의 총 4개의 하위요인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선행연구[1]에서 Cronbach's alpha .60이상의 적합한 신뢰도를 나타냈다. 각 문항들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운동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탈행동에 대한 문항은 김기오, 강정호[15]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탈행동은 비사회적 행동(시험부정행위, 음란 만

화 및 비디오 관람, 불량집단 가입, 불손한 행동, 등록금 유용, 징계경험, 도박 등; 7문항)과 반사회적 행동(무단 가출, 흡연, 음주, 환각제 복용, 유흥가 출입, 가제품 전출, 기물파손, 패싸움, 금품갈취; 10문항)의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들은 '전혀 없다' 1점에서 '매우 자주 있다' 5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일탈행동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지지에 대한 문항은 박재압[39]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평가적지지(4문항), 물질적지지(4문항), 정신적지지(4문항)의 3가지의 하위요인에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및 체육연구 분야의 전문가 5인과의 토론을 거쳐, 고등학교 체육특기생들의 학교생활 및 운동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기, 선·후배, 감독·코치와 같은 3그룹의 사회적지지자를 선정하였다. 즉, 3그룹의 사회적지지가에 따른 사회적지지의 정도를 각각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선행연구[39]에서 Cronbach's alpha .60이상의 적합한 신뢰도를 나타냈다. 각 문항들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3 자료분석 방법

자료 처리는 Windows SPSS ver 2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AMO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및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분석하였다. 매개효과의 검증은 위하여, 95% 신뢰도(confidence interval)에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특히, 아래의 연구모형[Fig. 1]에 동기(모델1), 선·후배(모델2), 감독·코치(모델3)와 같은 사회적 지지자를 대입한 3개의 모델로 각각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사회적 지지의 제공자에 따른 사회적지지, 스트레스, 일탈행동의 관계를 각각 분석하여 더욱 세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3.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특성

연구 대상자는 남성(67.6%)의 비율이 여성(32.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 중 1학년의 비율(42.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학년(32.4%)과 3학년(25.3%)가 뒤를 이었다[Tabl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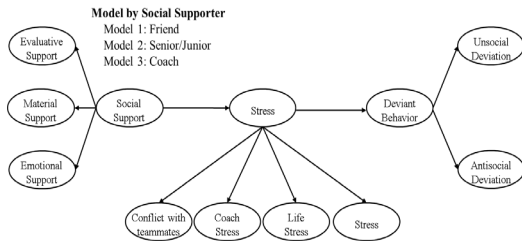


Fig. 1. Proposed research model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N=182)

	Spec.	N	Percentage
Gender	Male	123	67.6
	Female	59	32.4
School year	1	77	42.3
	2	59	32.4
	3	46	25.3
Student-Athlete Experience	One-year	3	1.6
	Two-year	15	8.2
	Three-year	42	23.1
	Four-year	73	40.1
	Over Four-year	49	26.9

3.2 확인적 요인분석

Table 2. Summary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odel fit	X2	df	CFI	SRMR	RMSEA
Model	1	865.33*	515	.90	.06
	2	879.82*	515	.90	.06
	3	865.33*	515	.90	.06

*p<.001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모델1(동기), 모델2(선·후배), 모델3(감독·코치) 모두 CFI .90 이상, SRMR .06 이하, RMSEA .06 이하의 적합한 지수를 나타냈다[Table 2][40,41]. 즉, 본 연구의 모델적합도는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신뢰도에 있어서는 모든 요인이 Cronbach Alpha .70이상의 적합한 신뢰도를 나타냈다[40,41]. 측정모델의 타당성은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는데, 집중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념신뢰도값(construct reliability; CR)을 이용하였고, 판별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표준오차추

정구간(two standard-error interval estimate)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 개념신뢰도는 모든 변수들에서 .70 이상을 나타내며 집중타당성을 확보하였다[40,41]. 또한 변수들 간에 어떠한 상관계수도 1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40]. CR, Cronbach Alpha, 평균값은 Table 3에 요약되어 있다.

3.3 구조방정식모형

Table 3. Summary of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 Cronbach Alpha, CR, AVE

	Model	CR	M	α
Evaluative Support	1(Friend)	.86	3.57	.82
	2(Senior/Junior)	.83	3.27	.84
	3(Coach)	.86	3.54	.80
Material Support	1(Friend)	.80	3.37	.79
	2(Senior/Junior)	.85	3.01	.87
	3(Coach)	.80	3.54	.75
Emotional Support	1(Friend)	.93	3.47	.92
	2(Senior/Junior)	.92	3.16	.93
	3(Coach)	.94	3.44	.86
Athletic Stress	1(Friend)	.76	3.44	.80
	2(Senior/Junior)			
	3(Coach)			
Conflict with teammates	1(Friend)	.83	2.33	.88
	2(Senior/Junior)			
	3(Coach)			
Coach Stress	1(Friend)	.81	1.96	.81
	2(Senior/Junior)			
	3(Coach)			
Life Stress	1(Friend)	.74	3.76	.82
	2(Senior/Junior)			
	3(Coach)			
Unsocial Deviation	1(Friend)	.96	1.90	.86
	2(Senior/Junior)			
	3(Coach)			
Antisocial Deviation	1(Friend)	.85	1.14	.83
	2(Senior/Junior)			
	3(Coach)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 모델1(동기), 모델2(선·후배), 모델3(감독·코치) 모두에서 CFI .90 이상, SRMR .06 이하, RMSEA .06 이하의 적합한 지수를 나타냈다. 먼저 모델1(친구)을 분석한 결과, 친구의 사회적지지는 스트레스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Table 4. Summary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Direct effect												
Path	Model											
	1				2				3			
	B	β	C.R.	S.E.	B	β	C.R.	S.E.	B	β	C.R.	S.E.
Social Support → Stress	-.25	-.26*	-2.53	.10	-.21	-.33**	-2.95	.07	-.39	-.37***	-3.66	.11
Stress → deviant behavior	.23	.39**	3.03	.08	.23	.36**	2.76	.09	.19	.35**	3.05	.06

Indirect effect												
Path	Model											
	1				2				3			
	B	β	95% CI		B	β	95% CI		B	β	95% CI	
			LL	UL			LL	UL			LL	UL
Social Support→ Stress→Deviant behavior	-.06	-.10*	-.23	-.01	-.05	-.12	-.25	.00	-.07	-.13*	-.25	-.01

*p<.05, **p<.01, ***p<.001, B = un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 β =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 LL = lower limit, UL = upper limit.

났다($\beta = -.26, p>.05$). 또한 스트레스는 일탈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39, p>.01$). 그러나 친구의 사회적지지는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일탈행동에 유의한 간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10, p>.05$).

다음으로 모델2(선·후배)을 분석한 결과, 선·후배의 사회적지지는 스트레스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3, p>.01$). 또한 스트레스는 일탈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36, p>.01$). 그러나 선·후배의 사회적지지는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일탈행동에 유의한 간접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12, p<.05$).

마지막으로 모델3(감독·코치)을 분석한 결과, 감독·코치의 사회적지지는 스트레스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7, p>.001$). 스트레스는 일탈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35, p>.01$). 또한 선·후배의 사회적지지는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일탈행동에 유의한 간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13, p<.05$).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는 Table 4에 요약되어 있다.

4. 논의

이 연구는 체육고등학교라는 특수한 교육환경과 문화에서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지지, 스트레스 및 일탈행동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에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사회적지지는 청소년 운동선수의 운동스트레스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설 1이 지지되었다. 세부적으로 코치(모델1; $b = -.37$)의 사회적 지지가 운동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선후배(모델1; $b = -.33$)와 친구(모델1; $b = -.26$)의 사회적지지가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9,16,35,36]. 이흥구[35]는 청소년 454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사회적지지는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있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주[9]는 중·소도시 실업계 고등학교 1·2학년에 재학중인 청소년 288명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지지는 생활스트레스와 유의한 부(-)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김종국, 조아미[36]의 새터민 청소년 22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또한 가족, 또래, 교사들의 사회적지지는 청소년의 두려움·차별감과 같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석수, 류진아[16]의 고등학교 1,2,3학년 317명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도 사회적지지가 이들의 다양한 생활 스트레스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의 사회적 지지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친구나 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6].

본 연구의 결과와 변석수, 류진아[16]의 연구간의 이러한 차이는 일반 고등학교와 체육고등학교간의 특성의 차이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합숙 생활을 기본으로 하여 일과시간의 대부분을 학교 안에서 보내게 된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교사, 감독, 코치와 같은 학교 내의 구성원들과 더욱

많은 시간을 보내며 교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코치의 사회적지지가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즉, 같은 청소년이라고 할지라도 일반 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와 같이 학교의 특성에 따라 사회적지지에 대한 연구를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사회적지지를 통한 학생들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학교현장에서의 적용에 있어서도 학교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실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운동스트레스는 이탈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설2가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 또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희, 조아미[17]의 흡연경험에 따른 스트레스 차이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부모 스트레스, 외모 스트레스, 경제 스트레스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흡연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부모 스트레스, 외모 스트레스, 경제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은주[9]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생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비행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비행간에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다[9].

특히, 청소년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언, 전정우[37]는 청소년 태권도 선수 410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지각된 스트레스가 가출, 결석, 금전문제, 성인모방과 같은 다양한 이탈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냈다. 민춘기, 김정태[38]는 고등학교 불링선수 154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스트레스와 이탈행동 간에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배재진[42]의 고등학생 유도선수 27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이들의 스트레스가 이탈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재진[42]의 연구에 따르면 고등학교 유도선수는 시합에 가까울수록 스트레스가 증가하였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훈련에 대한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사회적 행동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이탈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에 따른 이탈행동요인에서 비사회적요인, 반사회적요인에서 2학년집단이 이탈행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입상유무가 이탈행동요인의 하위변인인 비사회적요인에서 입상하지 않는 선수가 입상을 하는 선수보다 이탈행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와 일

탈행동 연구에 있어서 다양한 사회적 배경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지지는 운동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이탈행동에 유의한 간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설3이 지지되었다. 이는 다양한 선행 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주[9]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는 생활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이탈행동에 유의한 간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은주[9]는 교사의 사회적지지를 많이 받은 청소년일수록 비행에 적게 가담한다고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코치의 사회적지지가 운동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이탈행동을 줄이는 가장 큰 지지자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석수, 류진아[16]의 연구에서도 사회적지지는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청소년의 음주와 같은 이탈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상순, 오상우 박민철[10]은 사회적지지와 스트레스의 상호작용은 약물남용과 같은 이탈행동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5. 결론

이 연구는 체육고등학교라는 특수한 교육환경과 문화에서 성장하고 있는 182명의 청소년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지지, 스트레스 및 이탈행동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사회적지지는 청소년 운동선수의 운동스트레스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 설정한 선후배, 친구 및 코치 3명의 사회적 지지자 중에서 코치의 사회적지지가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계 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6]에서는 부모의 사회적지지만이 생활스트레스를 줄이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체육고등학교의 코치 혹은 감독의 적극적인 역할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둘째, 운동스트레스는 이탈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7,38,42]. 즉, 청소년 운동선수의

운동스트레스가 이들의 다양한 일탈행동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중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입상실적과 경기에서의 승패만을 목표로 하여 청소년 운동선수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이들의 일탈행동을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루일과의 대부분을 학교 및 합숙생활에서 보내는 체육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여가활동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지지는 운동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일탈행동에 유의한 간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친구와 코치의 사회적지지가 운동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일탈행동을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또한 교사의 사회적지지는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청소년들의 일탈행동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계 고등학교와 체육계고등학교 모두에서 교사(코치, 감독)의 역할이 청소년의 일탈행동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줄이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사와 코치를 중심으로한 다양한 일탈행동 방지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 논의 및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D시와 G시에 소재한 2개의 체육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체육특기생으로 연구지역이 다소 제한적이었다. 즉, 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많은 체육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연구한다면 더욱 의미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 운동선수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중학생을 포함한 더욱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연구의 방법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사회적 배경요인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즉, 후속연구에서는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운동종목, 운동경력, 성별, 나이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변인들을 분석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교육현장에 직접 적용하기 위한 더욱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작성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K. C. Lee, S. J. Seo, K. H. Lee, "Development of Stress Scale for Physical Education Highschool Students," Korean Society of Sport Psychology, Vol. 25, No. 2, pp. 105-118, 2014.
DOI: <http://dx.doi.org/10.14385/KSSP.25.2.105>
- [2]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2 Sport White Paper", Seoul: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3.
- [3] E. S. Kang,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yles of power structure, morale, team success,"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20, No. 1, pp. 1005-1017, 1981.
- [4] A. R. Kim, "The Effect that the Period of Camp Training have on the Sociability of Rayers," Journal of Korean Physical Education Association for Girls and Women, Vol. 8, pp. 49-59, 1994.
- [5] J. S. Lee, "Study on the realities in camp life of athletes," Kyung Hee University, Master's thesis, 1992.
- [6] J. H. Park, K. S. Kim, K. H. Kim, G. W. Nam, K. W. Min, S. S. Lee, C. H. Jung, H. S. Lee, H. J. Lee, "Association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Delinquent Behaviors and Level of Stress among Korean Senior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 Vol. 8, No. 6, pp. 971-978.
- [7] Y. H. So, "The Influences of Exercise Stress on Mental Health in Physical Education High School Athletes", Korea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Vol. 20, No. 2, pp. 47-62, 2009.
- [8] K. C. Lee, J. H. Dong, K. H. Leem, "Analysis on the Sports Stress of Physical Education Highschool Students," Journal of Coaching Development, Vol. 11, No. 4, pp. 129-138, 2009.
- [9] E, J. Lee, "The Influence of Life Event 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on Juvenile Delinquency," Studies on Korean Youth, Vol. 28, pp. 115-137, 1998.
- [10] S. S. Phee, S. W. Oh, M. C. Park, "Influences of Perceived Stress, Dysfunctional Attitude,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Coping Style on Maladaptation in the Adolescents with Substance Abuse,"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Vol. 39, No. 2, pp. 297-308, 2000.
- [11] T. R. Kim, J. H. Shon, H. S. Yoo, "Relationship Between Daily Stress and Aggression of Physical Education High School Athletes," Journal of Coaching Development, Vol. 16, No. 2, 2014.

- [12] A. K. Cohen, "Delinquent boys: The culture of the gang". NY: Free Press, 1955.
- [13] R. K. Merton,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N.Y.: Free Press, 1968.
- [14] C. M. Koo, "Study of the influence of sport environment on juvenile delinquency". Seoul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1991.
- [15] K. O. Kim, J. H. Kang, "The relationship between athletic satisfaction, anomie and social deviant behavior in high school athletes,"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41, No. 5, pp. 71-83, 2002.
- [16] S. S. Byun, J. A. Ryu, "The Mediating Effect of Stress on Social Support and the Drinking Behavior of Adolescents-In Centering Complex Rural Areas,"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Vol. 16, No. 4. pp. 301-371, 2013.
- [17] W. H. Lee, A. M. Cho, "The Differences of Smoking, Drink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among Three Categories of Youth," Studies on Korean Youth, Vol. 9, No. 1, pp. 17-37, 2007.
- [18] S. Cobb, "Social Support as Moderator of Life Stress", Journal of Psychosomatic Medicine, Vol. 38, pp. 300-314, 1976.
DOI: <http://dx.doi.org/10.1097/00006842-197609000-00003>
- [19] P. A. Thoits,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oretical Possibilities," In. I. G. Sarason, & B. R. Sarason(Eds). Social Support: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The Hauge, Netherlands: Martinus Nijhof, pp. 51-71, 1985.
DOI: http://dx.doi.org/10.1007/978-94-009-5115-0_4
- [20] I, H, Jang, S, R, Oh, Social Support Systems in Practice : A generalist approach, Seoul; Social Work Practices, 1996.
- [21] S. Henderson, "A Development in Social Sychiatry: The Systematic Study of Social Bonds," The Journal of Nervousand Mental Disease, Vol. 168, No. 2, pp. 63-69. 1980.
DOI: <http://dx.doi.org/10.1097/00005053-198002000-00001>
- [22] R. J. Turner, "Social Support as a Contingency in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 22, pp. 357-367. 1981.
DOI: <http://dx.doi.org/10.2307/2136677>
- [23] G. Caplan, "Support system and community mental health: Lectures on concept development," .NY :Behavioral Publication, 1974.
- [24] S. R. Pinneau,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stress," In Lin, N. Conceptualizing Social Support, Life Events and Depression(pp17-24). Orlando: Academic Pres, 1986.
- [25] A. M. Cauce, R. D. Felner, J. Primavera, M. A. Ginter, "Social Support in High Risk Adolescents: Structural Components and Adaptive Impac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10, pp. 417-428, 1982.
DOI: <http://dx.doi.org/10.1007/BF00893980>
- [26] W. Furnmen, D. Buhrmester, "Children's Perception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1, No. 6, pp. 1016-1024, 1985.
DOI: <http://dx.doi.org/10.1037/0012-1649.21.6.1016>
- [27] S. Harter, "Manual for the Social Support Scale for Children," Colorado: University of Denver, 1985.
- [28] E. F. Dubow, D. G. Ullman,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Vol. 18, No. 1, pp. 52-64, 1989.
DOI: http://dx.doi.org/10.1207/s15374424jccp1801_7
- [29] M. C. Wang, G. D. Haertel, H. Walberg, "Educational Practices and Policies that Promote Achievement. Publication Series No. 7," Philadelphia, Pa.:Mid-Atlantic Laboratory for Student Success and National Research Center on Education in the Inner Cities, 1966.
- [30] Y. H. Park, "Social Behavior and Leaning," Seoul: Education publishing company, 1986.
- [31] Z. Rubin, "Children's friendship,"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 [32] E. J. Choi, "Relationshippi between School Life Satisfac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Ajou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3.
- [33] K. D. Meguire, J. R. Weisz, "Social Cognition and Behavior Correlaties of Preadolescent Chumship," Journal of Child Development. 53., 1982.
- [34] E. Hurlock, "Child Developmen (6th Ed)," NY :McGraw-Hill, 1978.
- [35] H. G.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in Physical Activity after School and Social Support, Stress among the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42, No. 5, pp. 147-157, 2003.
- [36] J. K. Kim, A. Cho, "The effects on social support and acculturative stress among migrant North Korean adolescents," Jo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Vol. 5, No. 2, pp. 103-119, 2008.
- [37] S. U. Park, J. W. Jeon, "Juvenile Taekwondo Player's Coping and Deviant Behavior," The Korea Journal of Sports Science, Vol. 20, No. 5, pp. 377-391, 2011.
- [38] C. K. Min, J. T. Kim, "A Relationship Between Sports

Stress and Social Deviant Behavior of Bowling Athletes in High School," The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 Sports Science, Vol. 21, No. 3, pp. 50-61, 2003.

- [39] J. A. Park,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Sport Participation, School Life Satisfaction," Daegu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1.
- [40] J. J. Song, "SPSS/AMOS Statistics Analysis Method", Seoul: 21century Books, 2012.
- [41] J. C. Anderson, D. W. Gerb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Vol. 103, pp. 411-423, 1988.
DOI: <http://dx.doi.org/10.1037/0033-2909.103.3.411>
- [42] J. J. Ba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Deviant Behavior in High School Judo Players," Yongin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8.

권 옥 동(Wook-Dong Kwon)

[정회원]



- 1996년 2월 : 연세대학교 (체육학 박사)
- 2001년 3월 ~ 현재 : 대구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관심분야>

Sports philosophy and history, Leisure studies